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년 12월 15일(화) 10:00

담 당 자

정영주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협력처 연구협력팀장
 (044-550-1117, yj_jung@kdischool.ac.kr)

황지영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협력처 연구협력팀 전문원
 (044-550-1297, jy_hwang@kdischool.ac.kr)

배포일시

2020년 12월 14일(월) 14:00

배포부서

KDI국제정책대학원 홍보팀
 (044-550-1172, KDIS_pr@kdischool.ac.kr)

한국판 뉴딜: 국민과 함께 이루는 대전환

Inclusive Korea 2020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일 시: 12월 15일(화) 10:00~18:30
- 장 소: 서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3F)
- 주 최: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 관: KDI국제정책대학원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주관하는 「Inclusive Korea 2020 국제 컨퍼런스」가 '한국판 뉴딜: 국민과 함께 이루는 대전환'을 주제로 12월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구조적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한국판 뉴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미래비전에 대한 심층 토론의 장을 마련

○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확정·발표,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계획

- 이어 지난 10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고,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여 한국판 뉴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
- 컨퍼런스는 기조강연에 이어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역과 경제’, ‘한국판 뉴딜과 혁신경제’, ‘포용국가와 사회안전망’ 등 세 개 세션으로 구성
- 기조강연에서 제프리 삭스 교수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그 대응방식은 지역별·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 ‘K-방역’으로 대표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이 팬데믹 위기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세계 각국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전략과 대안을 제시
- 세션 1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역과 경제)에서 가브리엘 링 홍콩대 교수는 동아시아와 다른 대륙 국가 간 코로나19 확진 및 발생율을 비교 하고, 동아시아의 직면 과제를 소개
 - 문명재 연세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과 특징을 진단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평가하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성숙한 시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박신영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역통합연구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무역 붕괴와 경제 위축 현황을 살피고 국가별 정책지원을 평가, 국민건강증진과 경제성장에 필요한 디지털 도구와 기술 이용, 빈곤 취약 계층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

□ 세션 2(한국판 뉴딜과 혁신경제)에서 앤 페티포 영국 거시경제정책연구소장은 자원 소비의 가속화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그린 뉴딜의 핵심은 생태학적 위기의 근본 원인인 금융과 경제체제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밝힘.

○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디지털 뉴딜에 대한 정부의 추진력과 기업의 빠른 대응으로 단기간 사회 곳곳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을 진단하고 디지털 뉴딜의 마중물 효과를 소개

○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은 주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시도별 현황을 공유하며, 분권형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운영방식의 대전환, 지역의 주민참여 제고,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

□ 세션 3(포용국가와 사회안전망)에서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는 일의 미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여 교육시스템, 직업, 사회안전망 재정립이 필요함을 주장

○ 루이스 컴포트 피츠버그대 교수는 공중보건 위기와 같이 불확실성과 복잡도가 높은 위기 상황에서는 빠른 정책 추진, 정확한 메시지 전달, 리더십 및 공공부문 조직적 역량, IT 기술 활용이 중요함을 강조

○ 이승윤 중앙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며, 환경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청년 노동 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

□ 이번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국제정책대학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 시청 가능하며 동시통역 및 수화통역을 제공

- ❖ 첨부 1. 세부 일정
- ❖ 첨부 2. 세션별 발표요약문
- ❖ 첨부 3. 연사 프로필

- ❖ 별첨 1. 세션별 발표 자료
- ❖ 별첨 2. 행사 포스터

❖ 첨부 1. 세부 일정

시 간	프로그램
10:00~10:30	개회식 개 회 사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환 영 사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 사 박병석 국회의장(영상) 정세균 국무총리(영상)
10:30~11:30	기조강연. 코로나19 위기, 지속가능발전과 정책 거버넌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질의응답 사 회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11:30~13:00	오 찬
13:00~14:20	세 셴 1.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역과 경제 발 표 1. 코로나19의 질병부담과 그 분포: 동아시아 지역권 현황 가브리엘 링 홍콩대학교 감염병역학통제협력센터 교수 발 표 2. 코로나19와 정책대응: 거버넌스가 영향을 미치는가? 문명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발 표 3.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회생 국제비교 박신영 아시아개발은행 지역통합연구부장 지정토론 마크 립시치 미국 하버드대학교 공공보건대학원 교수 박복영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종합토론
14:20~14:30	휴 식
14:30~15:50	세 셴 2. 한국판 뉴딜과 혁신경제 발 표 1. 그린 뉴딜: 국제사례 비교 앤 페티포 영국 거시경제정책연구소장 발 표 2. 디지털 뉴딜의 혁신성장 체감사례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발 표 3. 국가발전축의 대전환-분권형 지역균형 뉴딜 염태영 수원시장 지정토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15:50~16:00	휴 식

16:00~17:20	세션 3. 포용국가와 사회안전망 발표 1.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의 재정립: 일의 미래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 발표 2. 코로나19 위기 대응방안으로서의 집단인지와 집단행동 루이스 컴포트 피츠버그대학교 공공국제대학원 교수 발표 3. 청년과 생태주의의 만남,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하여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지정토론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종합토론
17:20~17:30	휴식
17:30~18:30	종합토론. 한국판 뉴딜 성공의 조건 사회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토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김제남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윤태범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첨부 2. 세션별 발표요약문

기조강연. 코로나19 위기, 지속가능발전과 정책 거버넌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그 대응방식은 지역별,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신종 감염병 대응이라는 복잡한 문제 상황 속 새로운 형태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을 선보이며 팬데믹 위기 대응에 있어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음.
 - 'K-방역'으로 대표되는 선진적 거버넌스 모델은 보건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위기, 에너지 분야의 구조적 전환, 생물다양성 확보, 더 나아가 포용사회의 실현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른 주요 도전과제의 해결에도 주효한 대응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임.
- 전 세계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개별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단계별 전략과 대안을 제시

세션 1.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역과 경제

발표 1. 코로나19의 질병부담과 그 분포: 동아시아 지역권 현황

가브리엘 령 홍콩대학교 감염병역학통제협력센터 교수

- 동아시아 국가의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일은 다른 대륙보다 먼저였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율 및 사망률은 동아시아 국가가 유럽,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훨씬 낮음.
 -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염병 창궐은 반복되고 패턴도 유사하지만 세계화의 영향으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전염병의 확산 흐름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추세임.
 -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현재까지 동아시아 국가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률은 유럽,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훨씬 높으며, 마스크 착용에 대한 문화 및 인식 차이도 존재
- 대인 간 전염으로 감염된 2차 감염자 중 44%는 무증상 환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증상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해 격리하는 방법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연령에 따라 증상의 정도가 달라지며 고연령층은 전반적인 면역력이 약해 쉽게 중증 단계로 넘어 갈 수 있음.

발표 2. 코로나19와 정책대응: 거버넌스가 영향을 미치는가?

문명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보다 더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 정부의 대응 전략이 주목되고 있음.
 - 국가별 인구 수 및 의료 인프라가 코로나19를 막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부가 어떤 대응 방식을 택했는지도 국가별 코로나19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은 방역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며, 'K-방역 모델'이라고 불리는 선진방역 시스템으로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 데 성공함.
 - 'K-방역 모델'은 3T[Test(진단) - Trace(역학조사) - Treat(환자관리)]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추진
-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ICT 기반의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주고받는 언택트 경제가 확대됨.
 - 한국의 ICT 및 혁신기술에 기반한 3T 대응·데이터 활용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큰 영향을 미침.

발표 3.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회생 국제비교

박신영 아시아개발은행 지역통합연구부장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무역 활동이 붕괴됐으며 그 결과 상당수 국가의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됨.
 - 전 세계 국가들은 국경 일부(또는 전면) 봉쇄를 통한 국민의 이동 제한, 여행·운송·노동 이동 제한, 직장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억제에 일조했으나, 그로 인한 이동성 감소로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정책적 지원이 광범위하게 실행됐음에도 대다수 국가의 경제는 올해 1~2분기 큰 폭으로 위축됐고, 경제 전망도 여전히 하락세
 - 가장 큰 위기는 2~3분기에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으로 상당수 국가에서 억제 조치가 완화됐으나 국가별 편차가 큰 상황
- 코로나19의 영향을 억제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경제성장을 위해 디지털 도구·기술의 이용, 빈곤·취약계층 보호가 중요
 - 스마트하고 더 나은 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는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적 평등, 지속가능성의 강화가 포함돼야 함.

세션 2. 한국판 뉴딜과 혁신경제

발표 1. 그린 뉴딜: 국제사례 비교

앤 페티포 영국 거시경제정책연구소장

- 그린 뉴딜은 2007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생태학적 위기의 근본 원인인 금융과 경제체제를 안정시키고 국가 차원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주창됨.
 - 현재 대부분 국가들은 2007년 금융위기 때에 비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으며, 최근 몇 년간 세계 부채는 약 57조 달러 증가해 GDP 대비 부채비율이 17% 상승함.
 -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는 '규제받지 않는 신용(unregulated credit)'을 쏟아 붓는 금융시스템을 통해 유지되고 있음.
-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책무성 있는 민주주의 정부에 의해 금융부문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함.
 - 사회적 규제의 틀을 벗어난 자본은 혁신이나 기후변화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 축적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사회적인 노력을 통한 개혁 필요
 - 현재 EU와 애플 간 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국경을 초월한 자본이동성을 활용해 개별 회사들이 금융시장에서 쉽게 규제당국의 관리를 벗어날 수 있는 실정
 - 국제공조와 국제협력을 통한 공적 시스템 강화·회복만이 경제회복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음.

발표 2. 디지털 뉴딜의 혁신성장 체감사례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 디지털 뉴딜은 현재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기업의 빠른 대응으로 단기간 내 시장과 사회 곳곳에서 가시적이고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 냄.
-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은 데이터(Data), 클라우드(Cloud), 인공지능(AI)으로, 인공지능은 클라우드에 쌓인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진화하여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해 더욱 지능화된 디지털 서비스로 거듭남.
 -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가 '데이터 댐'에 모여 디지털 정부나 자율주행 등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창출할 것이며, 이를 적기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애자일(Agile)¹⁾한 유통체계가 더욱 중요
-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어려워지며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해짐.
 -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1,000개의 생활편의시설을 '디지털 역량센터'로 선정하고, 16개 지자체별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
 - 교육 전문기관이 대거 입찰에 참여했으며 '디지털 역량센터'의 강사 및 서포터즈 등 4,443개 일자리를 창출함.

1) 민첩하고 유연하게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도출하는 경영 트렌드

발표 3. 국가발전축의 대전환-분권형 지역균형 뉴딜

염태영 수원시장

-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이자 추진방식으로 시도별 지역균형 뉴딜 주요 사업을 소개
 - 글로벌 생존전략인 탄소 중립 달성과 목표를 함께 하며 지역 숙원사업으로 포장된 대규모 토목사업을 경계, 그린뉴딜과 포용의 정신으로 함께 하는 지역균형 뉴딜을 만들 것임.
- 지역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활성화해야 함.
 -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는 등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로 균형감 있는 지방행정을 만드는 데 기여
- 지역균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함.
 - 지방분권형(자율성, 책임성 강화) 운영으로의 사업추진 방식 전환,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완결성 제고, 지역산업 생태계 혁신 추진 등임.

세션 3. 포용국가와 사회안전망

발표 1.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의 재정립: 일의 미래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

- 현재 인공지능(AI)은 불과 몇 년 전보다 더 진화했으며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의 기능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독해 등 복합인지 능력까지 갖췄음.
 - 기술 변화에 따라 세계화의 양상도 달라지는 데, 1990년대의 세계화가 산업부문의 세계화였다면 2020년대는 서비스 부문 중심의 변화가 나타남.
 - 미래에 새로 생겨날 직업이 어떤 특성을 지닐지 예측할 수는 없으나, 인간은 AI가 재현하지 못하는 영역의 기술을 지원하고 AI는 인간의 업무 영역을 조금씩 대체해 갈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이후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교육 부문의 변화와 사회안전망 재정립이 필요
 - 다수 국가에서 전형적인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일자리 및 직종의 변화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므로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
 - 또한,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가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

발표 2. 코로나19 위기 대응방안으로서의 집단인지와 집단행동

루이스 컴포트 피츠버그대학교 공공국제대학원 교수

- 코로나19와 같이 불확실성이 크고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 전체의 집단행동뿐임.
 -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 전 국민적 위험 인식과 공공 행동 지침 수립이 중요함.
-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빠른 추진, 정확한 메시지 전달, 공공부문의 조직적 역량, IT 기술 활용이 중요
 -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양상은 빠르게 위험을 인식한 후 리더십과 공공 부문 역량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나뉨.
 - 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식 → 소통 → 조정 → 제어의 단계를 따르는 것이 중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조직 리더의 메시지에 따라 정책을 통일해 위험 상황을 통제해야 함.

발표 3. 청년과 생태주의의 만남,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하여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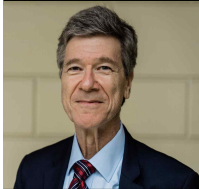
- 2000년대 초반부터 플랫폼 기업의 빠른 성장과 기술 발전으로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함.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 데이터 축적과 독점 등은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고 불평등을 확대시킬 것
 - 청년들의 확장실업률²⁾은 2015년 이후 공식 실업률의 매년 2배 이상으로 집계됐고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22.9%를 기록함.
- 이미 진행되고 있는 환경·기후 변화를 고려해 지속가능한 청년 노동 시장으로의 방향 전환이 중요
 - 탄소배출 기반 경제 성장의 대가로 2013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초과하며 이는 80만년 지구 역사 동안 전례가 없는 기록. 지구온난화가 현 속도로 지속된다면 2030년~2052년 사이 온도가 1.5°C 상승할 것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 생태친화적 노동시장 정책 수립이 필요
 - 현 세대 및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산업에서 생태 환경보전을 고려한 녹색 일자리(green jobs)와 녹색 직업훈련 및 교육(Green Training)을 확대하고,
 - 정부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그린 뉴딜에 걸맞은 생태친화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안전망이 필요

2) 현재 취업 중이지만 추가취업이 가능한 '시간관련 추가취업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로 구성된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반영한 실업률

❖ 첨부 3. 연사 프로필

기조강연. 코로나19 위기, 지속가능발전과 정책 거버넌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대표



- 現 유엔 브로드밴드위원회 위원
- 現 유엔 사무총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 특별 고문
-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100인' 선정
- 이코노미스트 '가장 영향력 있는 살아있는 경제학자 3인' 선정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질의응답 사회)



- 現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 現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前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대통령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

세션 1.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역과 경제

발표 1. 코로나19의 질병부담과 그 분포: 동아시아 지역권 현황

가브리엘 령 홍콩대학교 감염병역학통제협력센터 교수



- 現 홍콩대학교(HKU) 의대 학장
- 現 홍콩대학교(HKU) 공중보건 석좌교수
- 前 홍콩대학교(HKU) 지역사회의학 학과장
- 前 홍콩 정부 초대 식품위생차관

발표 2. 코로나19와 정책대응: 거버넌스가 영향을 미치는가?

문명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 現 미래정부연구센터 소장
- 現 미국행정한림원 종신학술회원
- 국제비영리단체 Apolitical '디지털정부 분야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발표 3.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회생 국제비교

박신영 아시아개발은행 지역통합연구부서장



- 現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역통합연구부서장
- 前 OECD 이코노미스트
- 아시아개발은행(ADB) 국가진단연구시리즈 등 주요 발간물 주 저자 및 기고자
- G20 개발그룹, ASEAN, ASEAN+3, APEC, ASEM 참여

토론

마크 립시치 미국 하버드대학교 공공보건대학원 교수



- 現 미국 하버드대학교 전염병역학센터 소장
- 現 세계경제포럼 팬데믹글로벌어젠다위원회 위원
- 前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백악관 과학기술자문회의(PCAST) 자문위원

박복영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 現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경제학 교수
- 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
- 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세 선 2. 한국판 뉴딜과 혁신경제

발 표 1. 그린 뉴딜: 국제사례 비교

앤 페티포 영국 거시경제정책연구소장



- 現 영국 신경제재단 회원
- 前 진보경제포럼(PEF) 자문위원

발 표 2. 디지털 뉴딜의 혁신성장 체감사례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 現 국무총리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 前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前 더불어민주당 제19대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책단장
- 前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발 표 3. 국가발전축의 대전환-분권형 지역균형 뉴딜

염태영 수원시장



- 現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現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 前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
- 前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토 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 現 국무총리 그린 뉴딜 특별보좌관
- 現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 現 서울시 온실가스감축 메타거버넌스 총괄위원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 現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민간위원
- 現 서강대학교 스마트핀테크 연구센터장
- 現 서울시 희망경제위원회 위원
- 前 아시아중소기업협의회장

세션 3. 포용국가와 사회안전망

발표 1.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의 재정립: 일의 미래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



- 現 정책포털 VoxEU.org 설립자 및 편집장
- 現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이사
- 現 일본경제산업성연구소(RIETI) 자문위원
- 前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자문위원

발표 2. 코로나19 위기 대응방안으로서의 집단인지와 집단행동

루이스 컴포트 피츠버그대학교 공공국제대학원 교수



- 現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재난관리센터장
- 前 일본 리쓰메이칸 대학교 지리학부 교수
- 前 미국 국립행정아카데미 회원

발표 3. 청년과 생태주의의 만남,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하여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現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前 제4차 국민연금제도개혁위원회 위원
- 前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토론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 現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現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운영위원회 위원
- 前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 前 중앙노동위원회 공인위원

종합 토론. 한국판 뉴딜 성공의 조건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사회)



- 前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 前 한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 前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 前 민주노동당 대표
- 前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 前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現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
- 前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前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 現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 前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김제남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 現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
- 前 제19대 국회의원
- 前 녹색연합 사무처장

윤태범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



- 現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現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 前 국정기획자문회의 위원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 現 철도복합환승포럼 공동대표
- 現 동아시아교통학회(EASTS) 국제학술분과위원장
- 前 한국과학기술원 교통시스템연구부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現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前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